

이슈브리핑 vol.320 2025년 4월

ISSUE BRIEFING



특송물류 중심지 경쟁의 분수령, 지금 전북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연구책임

나정호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김희수 연구원

요약

지금 전북자치도가 특송물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전북자치도는 한중카페리 항로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통해 특송화물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물류 거점 기능 부족으로 연관 산업의 선순환 효과가 제한되고 있음
- 특송물류 중심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 복합물류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 물류 실증,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경쟁력 강화 방향

- 전북자치도는 비수도권 유일의 한중 특송물류센터 독점성과 서해중부권의 전략적 입지를 기반으로 복합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장과 중국의 수출 강세는 특송물류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며,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연계해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인프라 개선, 글로벌 기업 유치, 민관 협력 확대, 단계적 비즈니스 모델 보완을 추진하여 독자적인 특송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함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 핵심과제

- 전북자치도는 중부권 특송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Sea&Air 복합물류 구축, 군산-시다오 카페리 항로 최적화, 스마트 물류 기술 도입이 필수적임
- 특송화물 물동량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해 트라이포트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고, 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 기대효과

- 전북자치도는 특송물류 확대, 스마트·친환경 물류 도입, 국경 간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을 통해 중부권 특송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음
- 트라이포트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혁신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키워드 특송물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새만금 트라이포트

1 지금 전북자치도가 특송물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가. 특송물류의 개념

“특송물류”는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물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물류시스템으로 주로 소량·다빈도·고속 배송이 요구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많이 활용됨

- 특송물류는 해외 직구, 역직구, 쇼핑물 배송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반도체·정밀기기·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기업 B2B 배송, 온도·시간 민감한 의약품·신선식품의 특수 배송, 서류, 샘플, 긴급 수송 등에 주로 활용됨
- 특송물류는 신속성, 소량·다빈도 배송, 관세·통관 절차 간소화, 글로벌 네트워크 최적화가 중요하여 연관 물류산업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함

나. 특송물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해외직구의 확대로 소량·다빈도 국제 특송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초고속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경 간 전자상거래(CBEC, Cross-Border E-Commerce)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관장, 물류센터 등 특송물류 인프라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은 국내로 반입되는 전체 물품 중 외국 인터넷 쇼핑물 등에서 구입한 물품임
 -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은 전년대비 37.8% 증가하였고 주로 중국, 미국, 일본에서 발송된 제품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은 소액물품으로 면세통관됨

[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 건, 천 불)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40,722	1,575,044	22,853	2,178,714	63,575	3,753,758
2021	58,553	1,975,198	29,827	2,683,159	88,380	4,658,358
2022	64,500	2,115,609	31,620	2,609,102	96,120	4,724,711
2023	96,929	2,742,239	34,514	2,536,178	131,443	5,278,418
2024	139,915	3,446,598	41,269	2,554,821	181,184	6,001,419

자료: 관세청(내부 행정자료), ※ 특송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기준

-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확대 추세) 인천 아암물류 2단계에 약 25만㎡ 면적의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조성되고 있으며, 2024년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가 정식 개장함
 - 아암물류단지는 전자상거래 특화 물류 인프라로 Sea&Air 복합물류, 디지털 기반 통합물류 서비스를 통해 신속 통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4월 개장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도 정부의 특송물류 비즈니스 기반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 취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전자상거래 급증의 기회와 대응)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은 해외 직구 소비자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 선점이 필요함
 - 2023년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2조 3,800억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
 - 대한민국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건수 기준 중국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였음

-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G마켓과 AliExpress Korea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 모델로, 이와 유사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북자치도 입지 경쟁력 입증과 기회 확보) 전북자치도의 서해중부권 입지는 물류 흐름과 중국 시장 접근성 면에서 특송물류 산업 발전의 기회로 작용함

- 2024년 4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 이후 월 80만 건 이상의 특송화물이 집중되고 있음(군산세관 연 900만 건 이상 처리 예상)
-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 Sea&Air 방식의 CBEC 물동량의 군산항 점유율은 약 40%로 국내 최대 규모임
- 새만금국제공항 연계까지 고려하면 기존의 인천, 평택 중심의 특송물류 구조에서 새로운 비수도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됨

[표] 항만별 한중카페리 연계 Sea&Air 처리물동량

(단위: 톤)

연도	군산항		인천항		평택항		총계
2016	0	0%	25,281	78%	6,307	19%	32,620
2017	305	1%	34,895	77%	9,328	21%	45,213
2018	2,437	7%	19,895	54%	13,121	36%	36,709
2019	11,078	23%	16,905	35%	18,833	39%	48,235
2020	9,163	15%	30,258	50%	19,967	33%	60,068
2021	18,823	31%	25,183	41%	16,769	27%	61,179
2022	27,500	40%	26,100	38%	15,300	22%	68,900
2023	39,200	40%	37,400	38%	21,960	22%	98,560

자료: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재구성;
나정호 외. (2024).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도입 방향 기초연구.
전북연구원, 51. 재인용.

다. 지금 전북자치도의 특송물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이유

○ (전북자치도 항만물류의 중심축) 한중카페리 항로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은 특송화물 유입을 증대시키고 물류 부대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된 화물은 타 지역 물류 거점으로 이동하여 지역 내 연관 산업 선순환 효과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

○ (예정된 치열한 경쟁 대비) 인천 아암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간 치열한 경쟁에 따라 현재의 특송화물 물동량 이탈 우려가 있음

-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월 80만 건 이상의 특송화물 통관이 집중되어 당초 예상했던 물동량 규모를 상회하고 있음(연간 900만 건 이상 예상)

- 특송통관 대기 지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신속 통관이 강점인 군산항이 선호도를 잃게 되어 타 지역 특화단지로 이전할 우려가 있음

- 지역 간 물동량 유치 경쟁 뿐 아니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간 치열한 경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선전, 광저우, 둥관, 이우 등 중국내 제조거점이 몰려 있는 남부지역 입지상 플랫폼 기업 간 속도 경쟁을 위해 Sea&Air 방식에서 Air&Air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의 분수령)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비수도권 특송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도 있고, 단순 통과 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

- (새만금국제공항 개항) 카페리 물동량을 기반으로 특송물류에 적합한 항공물류 공항 인프라와 연계하여 Sea&Air 복합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있음

- 체계적인 준비로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 특송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면 Sea&Air 방식 뿐 아니라 Air&Air 방식 전환에도 대응할 수 있음
- (전국 최초 특송화물 자율주행 물류 실증)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 구간의 특송화물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특송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 제공)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배송 경로 분석과 드론, 로봇을 활용한 배송 확대, 초고속 물류망과의 융합을 통해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음

2 전북자치도가 특송물류에 경쟁력이 있는가?

» 강점 (Strengths)

- (비수도권 한중 특송물류센터의 독점성) 한중 해상특송 화물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북자치도에서만 통관할 수 있으며, 향후 신규 개설 가능성이 낮음
 - 한중 해상특송화물은 현재 인천, 평택, 군산에서만 통관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전북자치도가 유일함
 - 관세청 동향상 향후 신규 특송물류센터 개설 가능성이 높지 않아, 독점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음
- (서해중부권 입지 강점) 전북자치도는 한중 카페리 항로를 활용해 효율적인 해상 물류 운송을 실현하며, 군산-시다오 단일 항로로 물동량 집중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함
 - 한중 카페리 항로를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인 국제 해상 물류 운송 네트워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물류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인천(10항로), 평택(5항로)에 비해 군산-시다오 단일 항로로 물동량 집중과 신속 통관의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음

- 특송통관 후속 연계 물류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시 수도권, 대도시 대비 인건비, 부지비용, 물류비 등 절감 가능

-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성) 새만금 트라이포트 인프라와 산업단지의 개선으로 특송물류의 경쟁력과 매력도 증가할 수 있음

- 새만금 트라이포트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새만금국제 공항은 항공 특송물류 허브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해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 기회가 열릴 수 있음
- 새만금 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어 특송 물류의 라스트마일 배송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약점 (Weaknesses)

- (특송물류 연계 인프라 부족) 전북자치도는 기존 특송물류 중심지에 비해 국제 특송물류 연계 인프라와 대형 특송업체 협력 기반이 미흡함
 - 첨단 특송 인프라를 갖춘 기존 특송물류 중심지에 비해 전북자치도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만 존재해 해외 특송화물 원스톱 처리 경쟁력이 낮음

- 글로벌 특송업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인 국제 특송 처리에서 전북자치도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함

○ (특송물류 비즈니스 모델 한계) 현재 생활물류 및 인천 공항 보세운송 경유지 역할을 하며, 대기업 물류센터 부재와 협력의 한계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확장에 한계

- 현재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 후 타 지역 생활물류 거점으로 이동 후 라스트마일 배송이 이루어지며, Sea&Air 화물은 보세운송으로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동함
-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대기업 물류센터 부재, 기업·물류업체 유치 어려움, IT 기반 특송물류 기업과 협력 수준이 낮음

» 기회 (Opportunities)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자 만족도 증가와 생활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대한민국 수입 및 제3국 수출 비즈니스 모델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친환경·스마트 물류 도입 기회) 전국 최초 특송물류 자율주행 간선수송 실증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로 생산성 향상 기대

-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 자율주행 실증(추진 중)을 비롯하여 드론, 로봇 배송 등 생활물류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친환경 추세에 맞추어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탄소중립 물류센터 신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연계할 수 있음

» 위협 (Threats)

○ (민간 투자 유치 어려움)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특송기업, 라스트마일 배송과 연계되는 생활물류 분야 대기업 등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음

- 생활물류 라스트마일 배송은 소수의 대형 물류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미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새로운 투자 유인이 제한적임
- 지역별로 세계적인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글로벌 특송기업 등 유치 경쟁이 치열하며, 해당 기업은 소비지 인접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조성 및 새만금 인프라 완성 시차) 인천 아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완공과 새만금 인프라 완성까지의 시차가 존재함

- 현행 추세대로 군산세관 통관 물동량이 급증하면, 인천 아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완공 후, 물동량 이탈이 발생할 수 있음
- 항공물류 연계, 새만금산단 대규모 기업 및 물류센터 유치,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새만금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함

3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경쟁력 강화 방향

» SO 전략 (역량확대)

- (독점성 활용 시장 확대) 비수도권 한중 특송물류센터 독점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공격적 확대 추진
 - 중국내 전자상거래 특구인 산둥성 웨이하이 지역 간 연결 노선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특송화물 물동량 증대 추진
- (특송물류 서비스 역량 강화) 서해중부권 입지 강점을 활용해 한중 카페리 항로 기반 효율적 해상물류 운송 및 친환경·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촉진
 - 현행 전북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해 특송물류 특화 모델을 구상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복합물류 비즈니스를 지원함
- (특송물류 연계 비즈니스 모델 발굴) 새만금 트라이포트 인프라 및 산업단지 연계를 통해 항공 특송물류 허브 구축 및 라스트마일 배송 경쟁력 강화
 -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대규모 특송물류센터 및 풀필먼트 센터 유치를 통해 특송물류 연계 비즈니스 고도화 추진

» ST 전략 (선택집중)

-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활용) 독점적 특송통관 인프라를 토대로 민간 투자 유치 한계 극복과 대규모 물동량 유치
 -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집중되는 특송화물 신속 통관을 위해 시설·설비 증설, 전자통관 시스템, AI 기반 기술 도입 실증 등 통관 효율성 제고

- (카페리 노선 효율성 제고) 군산-시다오 단일 항로의 비용·시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쟁 지역 대응
 - 군산-시다오 단일 항로 운영 특성상 하역, 통관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인천, 평택 등 카페리 취항 지역 대비 효율성 우위 유지
- (새만금 개발사업 연계) 새만금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인천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완공시 물동량 이탈 문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새만금기본계획에 탄소중립 특송물류센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여,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물류센터 안정적 운영의 최적지인 새만금 경쟁력 활용

» WO 전략 (기회포착)

- (인프라 단기 개선) X-ray 및 특송통관 시설·설비의 추가 도입으로 기존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물동량 포화에 대응
 -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해상특송화물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여 특송물류센터 내 신속 통관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설비를 완비
- (글로벌 기업유치와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전자상거래 성장에 대응하여 해외 특송업체와 협력 체계 구축 및 군산세관 통합 처리 기능 강화
 - 대한민국 특송화물 통관이 가능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와 연계하여 특송화물 물동량을 발생시키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주요 플랫폼 기업 유치 추진
- (친환경·스마트 특송물류체계) 친환경·스마트 물류 도입 기회를 활용해 대기업 물류센터 부재 및 IT 기반 협력 미흡 문제의 단계적 개선

- 전북자치도 물류기업이 보유한 중소규모 물류센터에 친환경·스마트 물류 기술을 접목하여 특송물류 비즈니스 사업화 모델 가능성 타진

» WT 전략 (약점보완)

- (정책적 지원)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 한계 대응
 - 국가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수도권 전자상거래 특화지역과 병렬 운영되는 비수도권 전자상거래 특화지역 반영 제안
- (단계적 개선·보완) 특송물류 비즈니스 모델 한계 보완을 위한 단계적 인프라 개선 및 협업 모델 다각화 추진
 -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 확보에 맞추어 특송물류 전용 화물터미널, 신속 통관 시스템 구축, 연계 내륙운송망 등 인프라의 단계적 개선 추진
- (새만금개발계획 연계) 인천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완공과 새만금 인프라 완성 시차 문제를 고려한 통합 물류 네트워크 및 연계 교통망 확충 전략 마련

			Strength	Weakness
			- 비수도권 한중특송물류 독점성 - 서해중부권 입지 강점 -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성	- 특송물류 연계 인프라 부족 - 특송물류 비즈니스 모델 한계
Opportunity	SO 전략(역량확대)	WO전략(기회포착)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확장 - 친환경·스마트 물류 도입 기회	- 독점성 활용 시장 확대 - 특송물류 서비스 역량 강화 - 특송물류 연계 사업 모델 발굴	- 특송물류 인프라 단계 개선 - 글로벌 기업유치 및 네트워크 - 친환경·스마트 특송물류체계		
Threat	ST전략(선택집중)	WT전략(약점보완)		
- 민간 투자 유치 어려움 - 인프라 조성 및 활용의 시차	-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활용 - 카페리노선 효율성 제고 - 새만금 개발사업 연계	- 정책적 지원 - 단계적 개선과 보완 - 새만금개발계획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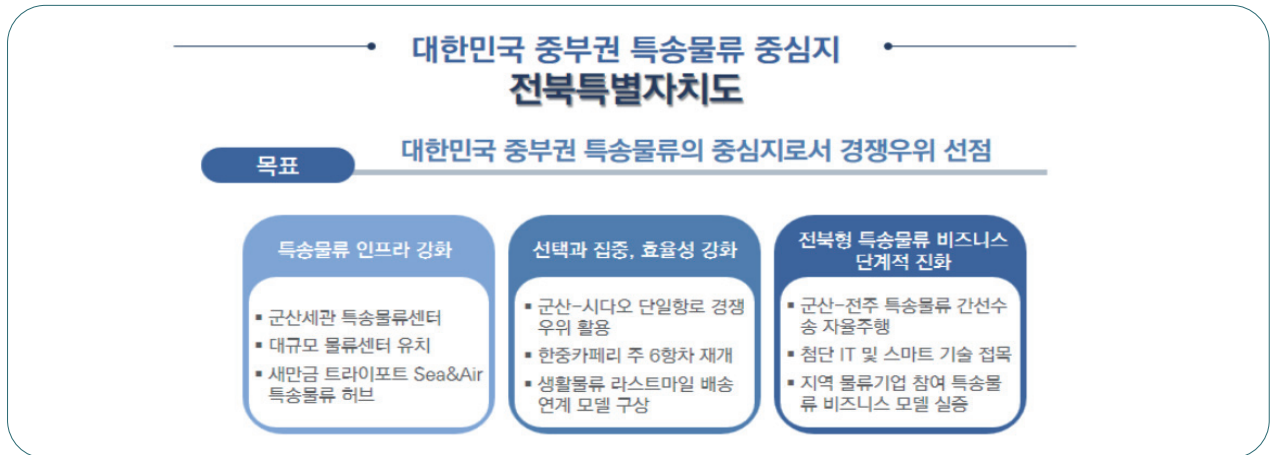
[그림]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경쟁력 강화 방향

»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 비전과 전략

-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경쟁력 진단: 전북자치도가 특송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 인프라 보완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가 국제공항, 항만, 철도망을 활용하여 특송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기업 유치·인프라 구축 등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함
- (대한민국 중부권 특송물류 중심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가 비수도권 특송물류 독점성과 입지 강점을 활용해 중부권 특송물류 중심지로 도약하자는 지향을 표현
- (전략1: 특송물류 인프라 강화) 특송통관 독점 인프라와 새만금 트라이포트 연계로 특송물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함
 -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로 유입되는 특송화물 처리를 완성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중부권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 중심지로 발전
 - 새만금 트라이포트 및 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해상·항공(Sea&Air) 특송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항공·항공(Air&Air) 방식에도 대응
- (전략2: 선택과 집중, 효율성 강화) 군산-시다오 단일 항로 운항을 활용하고, 라스트마일 생활물류 배송 효율화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동량 안정화 및 이탈을 방지
 - 군산과 시다오 단일 항로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하여 경쟁 지역 대비 우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주 6항차 운항 재개 추진
 - 라스트마일 생활물류 배송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동량 안정화 및 이탈 방지 필요
- (전략3: 전북형 특송물류 비즈니스 단계적 진화) 전북자치도 물류기업이 보유한 중소규모 물류센터와 첨단 기술, 플랫폼 기업 연계를 통해 특송물류 비즈니스 확장

- 첨단 IT 및 스마트 물류 기술 도입으로 인프라 부족 및 대기업 물류센터 부재 문제의 단계적 보완

- 정부·지자체와 민관 협력 체계 강화로 특송물류 연계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민간 투자 유치 및 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 추진



[그림]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 중장기 발전 전략

4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 핵심과제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여, 특송화물 물동량 규모화·안정화를 통해 기회를 선점하고 경쟁에 대응함

가. 특송화물 물동량 유지 및 단계적 증대 전략

○ (단기 대응)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물동량 급증에 대한 단기 대응으로 X-Ray 검색대 등 통관 설비의 추가 설치 건의

- 연간 900만 건의 수요를 예상하여 X-Ray 검색대 3기로 개장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에 물동량이 집중되면서 대기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특송물류센터내 유휴 공간이 있으므로 X-Ray 검색대 등 통관 설비의 추가 설치를 통해 향후 물동량 급증에 대한 단기적인 대비가 가능함

○ (중장기 대응)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특송통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실증하여 신속 통관, 안전한 질서 유지 등 목적을 달성함

- AI를 활용해 화물 X-ray 이미지 분석, 위험도 평가로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통관 솔루션을 개발해 서류 검토와 위험 분석을 자동화하여 기업 지원 기능 강화

- (특송화물 물동량 증대방안) 석도국제웨리의 주 6항차 재개를 통해 특송화물 물동량 규모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 상시 특송물류 통관 체계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물동량 규모와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거 군산-시다오의 주 6항차 서비스를 재개하여 특송화물 물동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나. 친환경·스마트 특송물류 경쟁력 제고 전략

- (특송물류 자율주행) 상용차 자율주행과 특송물류를 연계한 실증모델을 고도화하여 특송물류 자율주행 선진지로 기술 우위를 선점
 - 상용차 자율주행과 특송물류가 결합하면 물류비용 절감,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 안전관리 강화, 탄소배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됨
 - 특송화물을 대상으로 군산부터 전주까지 자율주행으로 실증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반의 친환경적이며 자동화된 물류센터의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음
- 친환경·스마트 기술력과 앞서 언급한 대로 군산-시다오 노선의 물동량 증대가 현실화되면 실제 특송물류에 연계된 물류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

다. 전북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조성

- (전북자치도 특성화 모델) 전북자치도로 유입되는 특송화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웨이하이 비즈니스 전용관, 특송통관 Fast-Track, 협력 생태계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음
 - 앞서 기술한 대로 군산-시다오 간 주6항차 카페리 서비스가 재개되고, 특송화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 상시 특송물류 통관 체계로 대응할 수 있음
 - 군산-시다오 단일노선 특성상 전북자치도로 유입되는 특송화물은 전부 중국 웨이하이 시다오 화물이므로 “웨이하이 비즈니스 전용창구”를 개설할 수 있음

- AEO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군산세관 특송물류 센터와 웨이하이(시다오) 전자상거래 특구에 동시에 등록된 인증 물류기업을 활용하여 “특송통관 Fast-Track”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GDC)”제도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기 제품과 시기를 고려하여 성수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 (특송물류 생태계 공생효과) 전북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되면 군산-시다오 간 주 6항차 카페리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음
 - 카페리 수송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물동량 성수기, 비수기를 완충하여 지역 선사들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특송화물 급증에 대응하는 AI 활용 및 인증물류기업을 통한 Fast-Track 제도 등 신속통관 체계를 도입하여 대국민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관련 부대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물류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 기대효과

1) 특송물류 물동량 증가 및 안정화 →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 신속 통관과 지역선사의 안정적 화물 처리,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물동량 증가 및 특송물류 확대 기대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성장 대응: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신속한 통관으로 대한민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기능 확대
 - 특송물류 인프라 보완: 석도국제웨리 주 6항차 재개를 활용한 안정적인 화물 처리로 인천·평택에 집중된 특송물류 분산으로 신속성 제고 효과
 - 스마트 물류 기술 도입: AI·스마트 기술 기반 자동화 통관 시스템을 도입하여 글로벌 특송 경쟁력 향상

2) 친환경·스마트 물류산업 선도 → 국가 물류 혁신 모델 구축

- 자율주행과 특송물류 연계, AI 기반 친환경·자동화 물류센터 유치를 통해 스마트 물류 혁신 가능
 - 자율주행 물류 도입 가속화: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과 특송물류 연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자율주행 물류 실증 확대 및 표준화
 - 탄소중립 물류 선도: 탄소배출 절감형 친환경 물류 운영을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함
 - 첨단 물류 클러스터 조성: AI 기반 친환경·자동화 물류 센터를 유치하여 국내 스마트 물류 혁신 모델 구축

3) 국경 간 전자상거래 중심지로 성장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

- 군산-시다오 특송화물 물동량 증가와 빅데이터 기반 재고관리 도입으로 전북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구축
 - 한중 전자상거래 허브 역할: 군산-시다오 노선의 특송화물 물동량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여 대한민국이 동북아 전자상거래 허브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
 - 글로벌 디지털 물류 네트워크 확장: 빅데이터 기반 재고관리 비즈니스 모델 도입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 및 플랫폼 경쟁력 제고
 - 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한 특송물류 산업 육성: 자유무역 지역과 연계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수출입 경쟁력 강화

4) 지역 물류산업 및 경제 활성화 → 국가 균형 발전 기여

- 특송물류 부대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며, 인프라 확장으로 트라이포트 연계 물류허브의 경쟁력을 높임
 - 비수도권 물류 거점 육성: 특송물류 증가로 지역 물류기업, 관련 부대산업의 균형 발전과 국가 물류 거점 다변화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송물류 인프라 확대와 기업 유치를 통한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5)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 대한민국 물류 해외 신뢰도 향상

- 특송화물 처리속도 향상과 카페리 수송 균형 조절, 글로벌 물류기업과 협력은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국제 특송 기업의 투자 유치: 특송화물 처리 속도 향상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특송물류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 글로벌 무역 인프라 강화: 카페리 수송 수요의 성수기·비수기 균형 조절로 복합운송 경쟁력 확보



[그림] 전북자치도 특송물류 중심지 도약 기대효과

iSSUE BRIEFING

vol.320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